

# 연예

10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 연예뉴스 HOT 3

### 슈퍼엠 '원 월드 투게더 옛 홈' 참여

그들 슈퍼엠이 레이디 가가가 여는 온라인 자선 콘서트 '원 월드 투게더 옛 홈(One World: Together At Home)'에 참여한다. 케이팝 그룹으로는 유일하다. 18일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는 레이디 가가가 세계보건기구(WHO) 및 자선 단체 '글로벌 시티즌'과 함께 주최하는 무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선 전 세계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하는 기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슈퍼엠은 셸린 디온, 폴 매카트니, 스티비 원더, 엘튼 존, 오프라 윈프리, 하이드 쿨롬, 잭 블랙 등 스타들과 함께 무대에 선다. 콘서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와 미국 ABC, NBC 등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된다.

### 트와이스 '&TWICE' 플래티넘 인증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발표한 '&TWICE(앤드 트와이스)'로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통산 9번째 기록이다. 트와이스는 지난해 11월20일 일본에서 선보인 두 번째 정규앨범 '&TWICE'로 10일 현지 레코드 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음반 인증을 받았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15일 밝혔다. '플래티넘'은 25만장 이상 출하량을 기록한 작품에 수여된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낸 9장의 음반으로 모두 관련 인증을 받았다. 한편 트와이스는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유튜브 오리지널 시리즈인 다큐멘터리 'TWICE:Seize the Light(트와이스:시즈 더 라이트)'를 29일 선보인다.

### 영화 '기생충' 주역 박명훈 부친상

영화 '기생충'의 주역 박명훈이 부친상의 아픔을 당했다. 15일 박명훈은 SNS를 통해 이날 부친의 부음을 전했다. 박명훈의 부친은 폐암으로 투병하다 이날 별세했다. 고인은 아들이 출연한 영화 '기생충' 개봉에 앞서 연출자 봉준호 감독의 배려로 스태프 시사회에 초청받아 영화를 관람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동작구 흑석로 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17일 오전 9시다.

## 위축된 극장가, 코로나19 뚫고 개봉 재개



한국영화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개봉 연기 등 위축됐던 영화계가 새롭게 관객에게 다가설 준비를 차리고 있다. 29일 선보이는 박세영의 '호텔레이크'와 5월6일 개봉하는 정용진 주연 '슈팅걸스'가 잇따라 관객을 만난다. 사진제공 | 영화사 오원·스마일엔터테인먼트

# '호텔레이크', 시사회로 물꼬 튼다

한국영화가 재기의 물꼬를 시작했다. 2월 중순부터 두 달여 동안 멈춰있던 개봉 움직임이 재개되고 온라인이 아닌 극장 시사회도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계가 활기를 되찾을 계기가 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배우 박지영·이세영·박효주 주연의 영화 '호텔레이크'(감독 윤은경·제작 이예스픽처스)가 29일 개봉을 확정하고 22일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언론배급 시사회가 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간간히 외화 시사회에 진행됐지만 한국영화의 시사회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진 상황이라서 '변화'가 포착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안내상·이항나·송창의 주연의 '저 산 너머'(감독 최종태·제작 리온픽처스)도 20일 용산CGV에서 시사회를 연 뒤 30일 개봉한다. 정용진 주연의 '슈팅걸스'(감독 배효민·제작 새비엔터테인먼트) 역시 24일 용산CGV에서 시사회를 열고 5월6일 작

29일 개봉 '호텔레이크' 신호탄 30일엔 송창의 주연 '저 산너머' 5월 '슈팅걸스' 6월 '얼론' 예고

품을 공개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평균 50여명 안팎으로 줄어든 데다 정부가 연장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한이 19일로 끝남에 따라 조심스럽게 일정을 모색하는 분위기에서 시작되고 있다.

'호텔레이크'의 관계자는 15일 "시사회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좌석 간 한 줄 띄어 앉기도 시행할 방침"이라며 "최대한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 작품을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 산 너머', '슈팅걸스' 역시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면서 관련 일정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국영화가 속속 개봉하면서 극장을 떠난 관객들이 돌아올지도 관심을

끈다. 타깃 관객이 분명한 영화들인 만큼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호텔레이크'는 1020세대 관객의 선호가 분명한 공포영화다. 외판 호텔에서 벌어지는 괴이한 일을 그리면서 관객에 극한의 공포 체험을 선사한다. '저 산 너머'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유년기를 그린 영화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되기 전 천진난만한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따스한 감동을 전하는 힐링무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2009년 열악한 환경을 딛고 여왕기 전국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삼레여중 축구부 이야기를 옮긴 '슈팅걸스'는 지금은 고인이 된 당시 김수철 감독이 이끈 감동 실화로 관객을 공략한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영화계는 5, 6월 개봉 라인업도 고민하고 있다. 개봉을 연기한 영화들이 최정호를 노리는 가운데 유아인 주연의 '얼론' 등 영화가 6월 개봉을 타진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 멈췄던 영화촬영장도 활기 되찾아

감염병 확산으로 멈춰 섰던 영화 제작진이 촬영현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해외 로케이션을 예정했다 중단하거나 취소한 영화들이 우선 국내 촬영을 통해 생기를 되찾고 있다.

황정민·현빈이 주연하는 영화 '교섭'이 이번 주말 크랭크인한다. 임순례 감독 연출로 중동에서 납치된 한국인 인질을 구하려는 외교관과 국가정보원 요원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는 당초 3월 요르단 촬영을 계획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

산에 따라 이를 취소한 뒤 한동안 작업을 멈춰야 했다. 제작진은 더 이상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국내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남미 콜롬비아 촬영을 도중 포기한 '보고다'(감독 김성제) 역시 이달 중 새롭게 국내 촬영에 나선다. 1990년대 콜롬비아에 이민을 떠난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보고다'는 올해 초부터 현지에서 촬영을 진행했지만 감염병 확산으로 3월24일 송중기·이희준 등 배우들과 제작진이 일시 귀국해야 했다. 콜롬비아 정부의

## 황정민·현빈 주연 '교섭' 주말 크랭크인 국내 촬영 전환 '보고다', 이달 중 재개

국경 봉쇄 등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제작진은 재정부 시간을 거쳐 조만간 국내 세트에서 촬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섭'의 제작사 영화사 수박의 신범수 대표는 15일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확산으로 촬영을 중단하는 등 제작비 규모에도 변동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일정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일정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 우선 국내에서 촬영한 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여름쯤 해외 로케도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작진이 드라마 내용 보안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 사진제공 | tvN

## "췌! 스포일러 금지"

tvN '슬기로운 의사...' 보안 철저히 대본 유출 막기 위해 각서까지 등장

'대본 외부 유출 금지, 각서!'

매회 시청률 상승 중인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작진이 출연자 등 모든 관계자들로부터 '각서'를 받았다. 드라마 내용이 외부로 일절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드라마는 올세병원에 모인 의사 동기 5명의 우정과 일상을 그린다. 의사들의 애환과 우정의 소소한 이야기로 공감을 모으면서 5회 만에 11.3%(9일·닐스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러브라인으로도 호기심을 자아낸다. 연출자 신원호 PD는 전작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주인공 공의 '남편 찾기'를 했던 것처럼, 시청자들이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의 '짝꿍'을 추리하도록 하고 있다. 매회 이들 5인방과 주변 인물들의 새로운 관계를 드러내는 일종의 반전도 마련했다.

이에 신 PD를 비롯한 제작진은 촬영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어느 때보다 보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작진은 극적인 재미를 살리기 위해 초반부터 '대본 비밀 유지'에 힘을 기울여왔다. 첫 촬영 시 작 전 스태프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조항이 담긴 각서서 서명을 받았다.

출연진과 소속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들에게는 "캐릭터의 등장 빈도, 자세한 역할 설명, 캐스팅 과정 등을 발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가 곧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다. 조정석의 동생으로 출연한 객선영이 그 예다. 초반엔 비중이 작았으나 정경호와 러브라인을 이루면서 한순간에 중요 인물로 바뀌었다. 인물 관계의 변화가 극의 핵심인 만큼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의 인물 소개도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하며 스포일러가 될 만한 부분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이는 시즌2를 위한 '물밑 작업'이기도 하다. 시즌1과 2를 이어갈 각종 장치들이 드러나선 안 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드라마의 결말에 시청자는 물론 출연진과 스태프도 궁금증을 드러낸다. 제작진은 시즌2에 관련한 내용은 물론 마지막 회조차도 여전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시 '위암 발생률' 급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대개 10세 이전에 사람의 위장 속에 들어와 위 점막에 20~50년간 영구 감염을 일으킨다. 위·십이지장 등에 주로 번식하는 세균으로 위장 점막 표면 또는 위 점막에 기생해 'CagA(cytotoxin-associated gene A)'란 특유의 독소를 분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독성은 급성 또는 만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을 유발한다고 밝혀져 WHO가 1994년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의해 만성 위염이 지속될 경우 위장 점막의 위축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후 식습관 등의 환경 요인과 가족력 등이 작용해 위암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암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이는 환자 개개인의 생활 패턴, 가족력 등 다양한 요인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위는 강산성기에 미생물이 생존하기 어렵지



만 헬리코박터균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균 자체가 우레 아제란 효소를 지닌 채 알칼리성 암모니아(NH3)를 생성하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시킬 수 있어서다. 덕분에 강한 강산성의 위 속에서도 문제없이 생존할 수 있다. 위암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오직 상부내시경으로만 진단이 가능하다. 육안으로만 파악하기 어려워 내시경 검사 후 반드시 조직 검사까지 실시해야 한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항생제, 위산억제제의 지속적 인 복용을 통해 이뤄진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치료 이후에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악성종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한다. 헬리코박터균 치료 이후에도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현석 청라 다정한내과 원장(내과 전문의)

### 임플란트, 개인별 맞춤 시술계획부터...사후 관리도 중요

성수동에 거주하는 A(53세)씨는 음식을 씹을 때마다 치아 통증을 느끼고 있는 했다.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심해져 식사를 할 때마다 씹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 고민 끝에 A씨는 병원을 찾았고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했다.

이가 상하거나 빠진 자리에 새로운 인공치아를 심어 넣는 임플란트 수술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새 치아가 필요한 젊은이들도 선호하고 있다. 틀니와 달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으며 인공치아임을 의식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외관 표정도 자연스러워 치아 콤플렉스인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며, 저작능력이 회복되어 음식을 씹을 때도 불편함이 없다.

과거에는 임플란트를 떠올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시술을 미루고 있는 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진료비의 30% 수준만 지불하면 수술이 가능해

이제는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임플란트의 종류는 다양하다. 병원에 내원해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받은 후 의료진과 상의 하에 자신에게 맞는 수술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3D CT를 통해 임플란트의 각도, 위치, 폭, 길이 등을 정확히 계산한 후 수술을 진행해야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심어진 뼈의 골질, 골량에 대한 정밀 분석은 필수이다.

임플란트는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일상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발생할 시 병원에 바로 내원해야 한다. 치과를 선택할 때는 주치의 개념으로 수술 이후에도 꼼꼼하게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품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김일남 성수역 우리치과 원장